

《瑪川別曲》의 紹介

尹 榮 玉

〈目 次〉

I. 序 言

II. 作品 紹介

III. 內 容

IV. 形 態

V. 瑪川別曲 後序

VI. 結 言

I. 序 言

이 《瑪川別曲》은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陶南文庫에 收藏된 가사이다. 橫이 19.5cm, 縱이 28.7cm, 每面 8行 2段의 作品 10面과 後序 3面으로 된 筆寫本 1冊이다.

筆者를 밝혀 놓지 않은 後序에 “李處士 瑪川曲”이라 하였고, 洪萬宗의 《旬五志》의 內容과 後序의 內容이 비슷하며, 作品의 內容에 “丙子亂 드러 보소”라는 말이 있고, ㉑行~㉓行이 斥和派의 一人이었던 金尙憲의 “가노라……” 詩調와 近似하며, 그 內容에서도 “和議만 일삼고”라는 表現이 있는 것으로 보아, 丙子胡亂을 겪고 난 뒤 肅宗朝나 그 뒤 處士 李某가 지은 것임을 알 수 있으나, 李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 作品은 모두 73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II. 作品 紹介

우선 作品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三年을 병이드러 一室에 누엇더니,

② 村童 牧笛聲에 竹窓을 미닷말가.

③ 봄은줄 물나더니 景慨”도 洵홀시고.

1) 原文에는 不明하여 “景”을 筆者가 補入

- ④ 塵冠을 떨쳐쓰고 竹杖을 빗기잡혀,
- ⑤ 竹林²⁾을 바라보며 仙洞³⁾에 드러가니,
- ⑥ 山花는 黼黻⁴⁾이오 谷鳥는 笙簫이라.
- ⑦ 王摩詰 輞川別業⁵⁾ 어느 저과 올마온고.
- ⑧ 陶淵明 栗里田園⁶⁾ 이아니 괴룻던가.
- ⑨ 蒼茫⁷⁾ 大野中에 幽絕⁸⁾ 一村庄이
- ⑩ 千層 玉壁은 瑪瑙⁹⁾로 깎아선듯
- ⑪ 萬頃 銀波는 襟帶¹⁰⁾로 흘러가니.
- ⑫ 松篁은 交映¹¹⁾고 槐柳는 成蔭¹²⁾의
- ⑬ 白雲 翠嵐으로 別區를 꾸며시니
- ⑭ 十代祖 遺墟오 三百年 古宅이라.
- ⑮ 家風은 清白이오 世德은 忠義로다.
- ⑯ 清溪에 몸을씻고 盤石에 누어시니
- ⑰ 雪衲 孤僧이 草庵에 마자드러
- ⑱ 瓦樽에 薄薄酒¹³⁾ 제어이 잇돏던지
- ⑲ 野蔌¹⁴⁾ 山肴로 잔에 수독 붓는괴야.
- ⑳ 紅潮¹⁵⁾를 반만피여 離騷經¹⁶⁾을 흘리웨니
- ㉑ 漁父는 어디안자 滄浪歌¹⁷⁾로 和答¹⁸⁾하고.
- ㉒ 芒鞋를 발에걸고 叢石을 발마올나
- ㉓ 萬丈峯 上上頭에 혼자안자 바라보니
- ㉔ 青丘 一域土도 적단말 못홀로다.
- ㉕ 星纏八方¹⁹⁾ 저形勝과 鳴吠四達²⁰⁾ 저民居에

-
- 2) “竹”을 補入
 - 3) “仙”을 補入
 - 4) 임금의 大禮服 치마에 꾸며 놓은 수 “보”는 흑백색 도끼모양의 수, “불”은 흑청색 ‘亞형’의 수 또는 紋章을 말함.
 - 5) 中國 陝西省 藍田縣에 있었던 康詩人 王維의 別莊
 - 6) 東晉末 陶潛이 官界에서 물러나 田園生活하던 곳.
 - 7) 마노, 보석의 한 가지.
 - 8) 산이나 강에 둘러싸인 要害地.
 - 9) 들나물
 - 10) 취하여 붉어진 얼굴
 - 11) 楚 屈原의 長篇 抒情詩.
 - 12) 漁父의 노래, (楚辭, 漁父辭) 滄浪之水清兮 濯吾纓 滄浪之水濁兮 濯吾足
 - 13) 八方으로 별이 펼쳐 비침
 - 14) 닭울음과 개짖는 소리가 四方에 들림.

- ②⑥ 一大縣 凶奴衆을 剖巢燠穴¹⁵⁾ 어려우랴,
 ②⑦ 壬辰年 字小恩¹⁶⁾은 除凶雪耻¹⁷⁾ 쉬울거슬,
 ②⑧ 周室이 衰弱 否야 大戎이 猖獗홀제
 ②⑨ 屏翰¹⁸⁾으로 우리보사 羽檄¹⁹⁾으로 불리시니
 ③⑩ 韓延年²⁰⁾의 戰死야 天下有辭 否려니와
 ③⑪ 李陵²¹⁾의 投降은 隴西之耻²²⁾ 이틀소냐,
 ③⑫ 嗚呼라 목이멘다 丙子亂 드러보소,
 ③⑬ 文王²³⁾은 樂天者라 昆夷²⁴⁾를 섬겨시나
 ③⑭ 宣王²⁵⁾의 六月師는 獫狁²⁶⁾을 쫓차시니
 ③⑮ 저점적 漢城中에 애돌다 陳孺子²⁷⁾는
 ③⑯ 禦戎策 어디두고 和議만 일삼은고,
 ③⑰ 人或曰 不得已나 誤國之名 免홀소냐,
 ③⑱ 仲連²⁸⁾은 蹈海추고 伯夷²⁹⁾는 採薇로다,
 ③⑲ 저근덧 堅壁딘들 제절로 遁去커든
 ④⑩ 田禽만 執言말고 獯夏를 預防³⁰⁾ 否야
 ④⑪ 鴨綠江 물마시며 長白山 북울리면
 ④⑫ 漠南³¹⁾ 王庭이 몇간이 나마시리,
 ④⑬ 南山竹 새허넌들 白登七日³²⁾ 辱다쓰며

- 15) 소굴을 헐고 불을 놓아 그곳에 있는것을 없애 버림.
 16) 작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애처롭게 여김.
 17) 오랑캐를 물리쳐 치욕을 씻음.
 18) 柱石之臣, 重臣.
 19) 羽檄=羽書(史記) 吾以羽檄 徵天下之兵 未有之者.
 20) 未詳
 21) 前漢의 武將으로 武帝詩 凶奴와 싸워 敗하고 匈奴의 領首單于의 딸을 아내로 맞아 20년 살다가 病死.
 22) 未詳
 23) 周의 文王으로 西戎의 나라 昆夷를 섬김
 24) 옛 西戎의 나라, 文王事昆夷(孟子).
 25) 周厲王의 아들로 王이 되어 西戎과 獫狁 등을 토벌케 하여 周道를 復興한 中興英主.
 26) 匈奴의 古稱.
 27) 대상을 알잡아 칭한 것.
 28) 魚仲連, 戰國時代 齊나라의 義士.
 29) 段孤竹君의 아들.
 30) 中華를 괴롭히는 오랑캐(書舜典) 蠻夷獯夏.
 31) 內蒙古 오랑캐(胡).
 32) 漢高帝가 昌頓에게 白登에서 七日동안 포위되었던 치욕.

- 44 東海波 햇처넌들 城下同盟³³⁾ 恨씨스라.
- 45 大明國 淪喪後에 春秋經 討復義로.
- 46 風雲³⁴⁾은 際會³⁵⁾와 魚水³⁶⁾는 一堂³⁷⁾야
- 47 萬里城門 도라들어 楚懷王孫³⁸⁾ 구차서니
- 48 胡運이 기뒀던가 天道도 모를로다.
- 49 永安宮³⁷⁾ 喪事나고 五丈原³⁸⁾ 陣뒀치니.
- 50 千秋萬世 다³⁹⁾도록 志士⁴⁰⁾는물 마를손가.
- 51 슬프다 천⁴¹⁾함이 國事을 議論⁴²⁾하.
- 52 公卿大夫 ⁴³⁾을근심 草野寒士 엇지알니.
- 53 羲皇天地 世界우회 第一樂事 詩酒로다.
- 54 白鷗⁴⁴⁾는 버지되고 扁舟로 집을 삼아
- 55 無絃琴³⁹⁾ 등에지고 無餌釣⁴⁰⁾ 손에들어
- 56 綠楊堤 거러노려 蓬窓에 지다하니
- 57 山風은 習習⁴¹⁾야 兩腋을 추허는듯
- 58 水月은 娟娟⁴²⁾야 一心을 물키는듯
- 59 取⁴³⁾흔들 兀然⁴⁴⁾며 用⁴⁵⁾흔들 竭⁴⁶⁾홀소나.
- 60 人間에 公物이오 世外에 清飢⁴⁷⁾이라.
- 61 三公이 貴⁴⁸⁾타흔들 이江山 맛꿀소나.
- 62 白髮蒼顏 이窮生이 明月清風 富者로다.
- 63 丹丘⁴⁹⁾는 菜園⁵⁰⁾되야 三秀靈芝 맛과내고
- 64 曲江은 池塘⁵¹⁾되여 巨口細鱗 길너두니
- 65 許渾身世⁴³⁾ 엇더턴고 原憲生涯⁴⁴⁾ 내물나라.

33) 丙亂때 仁祖가 淸에게 항복한 일.

34) 英雄 豪傑들 風雲際會.

35) 君臣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

36) 屈原이 仕宦하던 懷王의 孫子. 項羽가 義帝의 칭호를 바쳤으나 뒤에 呂布로 하여금 죽음.

37) ① 蜀의 先主가 죽은곳(蜀志 後主傳)三年夏四月 先主殂于永安宮 ② 劉備가 죽은 곳.

38) 諸葛孔明이 魏의 司馬懿와 싸워 敗한 곳.

39) 바람.

40) 미끼 없는 낚시.

41) 神仙이 산다는 가상적인 곳

42) 唐時 百僚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던 곳.

43) 晚唐詩人인데 身病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丁卯澗村莊에 은거하여 자연의 정취를 즐기기도 하였으나 비분강개하는 정열도 가졌다.

44) 孔子의 손자로 中庸의 저자인 子思, 子貢이 찾아와 先生은 무슨 병입니까 하

- ⑥ 그러나 移居計는 님모르니 憂患일죄,
 ⑦ 내사리 淡泊하니 어느고지 더뭇하니,
 ⑧ 一竿竹 더질곳은 물구뵈도 만타마는
 ⑨ 先山을 멀리두고 省墓를 잊지홀고,
 ⑩ 今年이 六十이라 脚力이 전혀업다.
 ⑪ 가노라 青山綠水 후에보자 綠水青山.
 ⑫ 故園 江山을 내솔히 만나마은
 ⑬ 時節이 하紛紛하니 불동말동 하여라.

Ⅲ. 內 容

이 作品은 序詞 本詞 結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序 詞

이 序詞에서는 3年을 臥病타가 賞春行을 떠나는 內容을 담고 있는 ①~⑧行으로 構成되어 있다.

三年을 병이드러 一室에 누엇더니,
 村童 牧笛聲에 竹窓을 미닷말가.
 봄온줄 몰나더니 景概도 妬홀시고,
 塵冠을 떨쳐쓰고 竹杖을 빗기집혀
 竹林을 바라보며 仙洞에 드러가니
 山花는 翻飛이오 谷鳥은 笙篁이라
 上摩詰 輞川別業 어느저기 올마온고.
 陶淵明 栗里田園 이아니 괴롯던가.

3年동안 臥病타가 새 봄을 알리는 村童들의 牧笛소리에 비로소 竹窓을 열고 바깥 세계를 바라보고 봄이 왔음을 確認한다. 봄과 더불어 소생하여 봄의 아름다운 景概에 이끌려 그 景概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3年 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앉아 있는 갓을 떨쳐 쓰고 竹杖을 빗기 짚고는 竹林을 바라보고 仙洞으로 들어간다. 이 仙洞에서 바라보는

고 불었을 때 無財를 貧이라 하고, 배웠으나 行할 수 없음을 病이라 하니 나는 貧할 뿐 病은 아니다 하여 子貢이 머뭇거리며 부끄러워 했다.

景概는 山花인데 이 山花는 보불처럼 아름다운 紋章을 이루어 눈 앞에 닥아오고, 山谷에서 우니는 새의 노래소리는 笙篁처럼 귀에 울려온다. 봄의 生氣 속으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景概를 王維의 輞川別業과 陶淵明의 栗里田園에 比較하고 있다.

作者는 竹窓 竹林이란 語彙와 王摩詰의 輞川別業 陶淵明의 栗里田園을 이끌어와서 그의 處士의인 태도를 隱然中에 나타내었다. 그러니 아마 “三年을 病이드려 一室에 누었더니”한 것도 身病을 말한 것이 아니고, 松江이 《關東別曲》에서 “江湖에 病이 걸려 竹林에 누었더니”한 表現과 같이 外部世界와 絶緣하고 지냈음을 나타낸 것일지도 모른다.

2. 本 詞

이 本詞는 ⑨~⑩行의 62行, 5段落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것을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十代祖遺墟地景概

蒼茫은 大野中에 幽絶한 一林庄이
千層 玉壁은 瑪瑙로 깎아선듯
萬頃 銀波는 襟帶로 흘러가니,
松篁은 交映하고 槐柳는 成蔭하니
白雲 翠嵐으로 別區를 꾸며지니
十代祖 遺墟오 三百年 古宅이라,
家風은 清白이오 世德은 忠義로다.

山花와 谷鳥가耳目을 황홀케 하는 가운데 仙洞을 찾아 들어 그 視線은 十代祖 遺墟地오 三百年 古宅으로 向한다. 넓고 넓은 큰 들 한 가운데 幽絶한 한 村庄이 그것이다. 그 곳은 다음과 같다. 瑪瑙로 개아 세운 듯한 千層의 玉壁이 둘러쳐져 있고 萬頃의 銀波는 襟帶로 흘러들어 모이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섞여 비취 푸름을 더하고, 느티나무와 버드나무는 그늘을 짙게 한 데 白雲과 翠嵐으로 덮히고 싸이어 別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十代祖 遺墟地의 景概다. 이것은 景概의 描寫일 뿐만 아니라, 玉壁, 銀波, 松篁, 白雲 등의 象徵의 語彙를 동원하여 “家風은 清白이오 世德은 忠義로다”하는 自誇의인 主張을 하기 위한 霧圍氣의 造成이다.

그리고 序詞에서의 處士의 態度를 여기에서 家門의 家風과 世德에 聯關지어 自誇 自矜하고 있다.

(2) 山行緩步

清溪에 몸을 씻고 盤石에 누여시니
雪納 孤僧이 草庵에 마자드러
瓦樽에 薄薄酒는 제어이 잊듯던지
野藪 山僧로 잔에수독 붓는괴야,
紅潮를 반민석여 離騷經을 흘리웨니
漁父는 어디안자 滄浪歌로 和答하고,
芒鞋를 발에걸고 叢石을 발마올나
萬丈峯 上上頭에 혼자안자 바라보니
靑丘 一域土도 세단말 못홀로다.

清溪에 몸을 씻어 새로운 기분으로 盤石에 누워 있는데 雪納의 孤僧이 草庵으로 맞아들인다. 그리고는 山僧이 瓦樽의 薄薄酒와 野藪 山僧로 술을 권한다. 春興에 酒興까지 겹치게 된다. 그래서 興趣는 高潮되어 屈原이 奸臣의 讒言으로 王에게 信任을 받지 못함을 失望하여 지었다는 離騷經을 웨니 漁父는 滄浪歌로 和答한다. 興趣 滔滔한 가운데 불리어진 것이 하필이면 離騷요 滄浪歌일까? 이것은 다음에 나타나는 時嘆과 관계가 있다.

일어나 芒鞋를 발에 걸고 叢石을 밟아 올라 萬丈峯 上上頭에 오른다. 이 萬丈峯 上上頭에서 바라 본 廣闊한 景概로 靑丘의 一域土가 적지 않음을 確信한다. 적지 않은 國土로써 어찌하여 外敵에 의한 受難을 겪어야 했는가 하는 恨嘆이 言外에 숨어 있다고 하겠다. 山行緩步하면서도 國難에 대한 苦惱를 떨쳐 버릴 수 없었던 作者를 想起하게 된다.

(3) 時 嘆

이 時嘆은 疲弊와 怨和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星纏八方 저形勝과 鳴吠四達 저民居에
一大縣 凶奴家을 剖巢燬穴 어려우랴.
壬辰年 字小恩은 除凶雲耻 쉬울거슬.
周室이 衰弱흐야 犬戎이 猖獗홀제
屏翰으로 우리보샤 羽檄으로 불리시니
韓延年의 戰死야 天下有辭 可러니와
李陵의 投降은 隴西之耻 이불소냐.

八方으로 별이 펼쳐 있는 아름다운 경치, 四達로 닭이 울고 개가 짖는 태평스런 民居에서 한 큰 고을에 지나지 않는 倭寇를 없애기 위해 그들이 웅거하고 있는 동지를 헐고 소굴을 불태우기야 무엇이 어려웠겠는가. 壬辰亂 倭寇에 베푼 恩惠로서야 凶惡함을 제거하고 恥辱을 씻을 수 없었겠는가.

그러나 周의 王室이 衰弱해서 犬戎이 창궐할 때 柱石之臣들로 울을 삼고 羽檄으로 天下之兵을 불러 모았으나 韓延年은 戰死했고 李陵은 投降했으니 그 恥辱 말할 수 없었던 것처럼 柱石之臣과 天下之兵이 盡忠 護國 못했으니 어찌 하겠는가. 壬辰倭亂 以後의 疲弊한 나라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다.

嗚呼라 목이맨다 丙子亂 드러보소.
 文王은 樂天者라 昆夷를 섬겨시나
 宣王의 六月師는 玁狁을 쫓차시니
 저점의 漢城中에 애들다 陳孺子는
 禦戎策 어티두고 和議만 일삼은고.
 人或曰 不得已나 誤國之名 免호소냐.
 仲連은 蹈海하고 伯夷는 採薇로다.

壬辰亂에서의 國恥는 말할 것도 없지만, 丙子亂에서 당한 國恥를 말하러니 목이 메인다. 周의 文王이야 樂天者여서 西戎의 하나인 昆夷를 섬겼지만 宣王은 西戎 玁狁을 討伐하여 周를 復興케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丙亂時에 漢城의 陳孺子들은 오랑캐 막을 計策은 어디에다 버려 두고 和議만 일삼았던가. 혹 사람들이 不得已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라를 그르쳤다는 이름을 어찌 免할 수 있겠는가. 無禮한 秦이 趙를 支配하게 됨에 그것을 피해 魯仲連은 그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 東海를 건넌고, 殷의 紂王을 討滅하고 周를 세운 武王의 行爲가 仁義에 위배된다고 하여 周穀마저 먹지 않겠다고 伯夷는 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 먹었도다. 그런데 어찌 我國의 臣下들은 오랑캐와 和議하기만 주장하였던고.

저근딛 堅壁던들 제절로 遁去커든
 田禽만 執言말고 猾夏를 預防하야
 鴨綠江 물마시며 長白山 북울리면
 漠南 王庭이 몇간이 나마시리,
 南山竹 새허넌들 白登七日 驛다쓰며

東海派 헛처넌들 城下同盟 恨씨스라,
 大明國 淪喪後에 春秋經 討復義로
 風雲은 際會호고 魚水는 一堂호야
 萬里城門 도라들어 楚懷王孫 구차씨니
 胡運이 기뒀던가 天道도 모를로다.
 永安宮 喪事나고 五丈原 陣못치니
 千秋萬世 다하도록 志士는물 마를손가.

일마간이라도 城壁을 굳게 하였던들 오랑캐가 저절로 도망해 갔을 것이
 요, 田禽만 고집하지 말고 蠻夷 猾夏를 豫防해서 兵馬를 鴨綠江에서 물마
 시게 하고 長白山에서 戰鼓를 울렸더라면 奴인 胡國의 王庭이 몇 間이
 남았겠는가. 外寇의 防備에는 힘쓰지 않고 安逸하게 田禽만 일삼다가 胡
 亂을 당한데 대해 恨嘆하고 있다. 南山의 대나무를 다 베어 木을 만든들
 漢의 高帝가 冒頓에게 七日동안 白登에게 포위되었던 것과 같은 南漢山城
 에 갇혔던 恥辱을 어찌 다 쓰며, 東海의 물을 다 헤쳐 넌들 三田渡受降壇
 에서 올린 降禮의 恨을 씻을 수 있으랴.

大明國이 淪喪한 뒤에 春秋經을 探討하여 復義함으로 英雄豪傑이 다 모
 이고 임금과 신하가 한 자리에 모이어 萬里城門을 돌아 들어 楚懷王孫을
 救한 것처럼 하자 하였더니, 오랑캐의 運數가 길든지 天道도 알 수가 없
 구나, 北伐計劃을 수립하여 淸에게 雪辱하려던 孝宗마저 崩御하시어 戰陣
 한번 벌여 보지 못했으니 千秋萬世 다하도록 恨스러운 志士의 눈물 마를
 날이 있겠는가.

王亂에 이어 丙亂으로 입은 國恥에 대하여 憤怒하고 있음이 이 作品의
 주된 內容을 이루고 있다.

(4) 山林處士

슬프다 천하물이 國事를 議論호랴.
 公卿大夫 ㅎ을근심 草野寒士 엇지알니.
 羲皇天地 世界우회 第一樂事 詩酒로다.
 白鷗는 버지되고 扁舟로 집을삼아
 無絃琴 등어지고 無餌釣 손애들어
 綠楊堤 거러느려 蓬窓에 지다히니
 山風은 習習호야 兩腋을 추허는듯
 水月은 娟娟호야 一心을 물키는듯

取^한들 俯^한禁^한며 用^한들 竭^한홀소나.
 人間에 公物이오 世外에 淸餉이라.
 三公이 貴타^한들 이江山 맛꿀소나.
 白髮蒼顏 이窮生이 明月淸風 富者로다.
 丹丘는 菜園되야 三秀靈芝 갖과내고
 曲江은 池塘되여 巨口細鱗 길너두니
 許渾身世 엇더턴고 原憲生涯 내몰나라.

賤한 몸이 國事를 議論하며 公卿大夫가 할 근심을 草野寒士가 어찌 알겠는가. 스스로 賤한 몸이요 草野寒士라 하여 자기를 낮추고 國事를 議論하고 근심할 公卿大夫의 그렇지 못함을 隱然中 詰責하고 있다.

國事論議과 근심의 밖에는 世界는 羲皇盛時와 같은 太平天地이니, 여기서의 第一樂事는 詩酒이다. 사람이 아닌 白鷗는 벗이 되고 扁舟로 집을 삼아 줄없는 거문고, 곧 바람을 등에 지고 미끼없는 낚시를 손에 들고 푸른 수양버들이 휘늘어진 언덕을 걸어 내려 扁舟의 蓬窓에 비껴 있다. 산바람은 부더러워 兩腋을 주켜 드는 것 같고 물에 비친 달은 아름다와 마음을 맑게 해 주는 듯하다. 이 바람과 달, 내가 가진들 누가 禁할 것이며, 쓴다고 해서 없어질 것인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인간세상 바깥에서 얻을 수 있는 맑은 선물이 아니겠는가. 三公이 貴하다고 한들 이 江山과 바꾸겠는가. 白髮蒼顏으로 구차히 살아가는 이 人生이 明月 淸風만은 富者로다.

나의 菜園은 神仙이 사는 丹丘처럼 靈芝를 가꾸어 내고 池塘은 百僚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曲江이 되어 巨口細鱗을 길러 내니, 唐代에 自然에 묻혀 慷慨하면서 情熱으로 살았던 詩人 許渾 身世나, 배우고도 行하지 못하는 病者가 아니고 財物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原憲의 生涯보다 나의 生涯가 못하지 않는 것이다.

國事を 議論하고 근심할 處地가 아님에야 오히려 山林處士를 自負하고 있다.

(5) 患移居

그러나 移居計는 남모르는 憂患일외.
 내사리 淡白한니 어느고지 더뭇한리.
 一竿竹 더질곳은 물구뵈도 만타마는
 先山을 멀리두고 省墓를 엇지홀고.

今年이 六十이라 脚力이 전혀없다.

어떤 緣故인지는 모르나 先塋이 있는 곳에서 移徙를 해야만 했던 모양이다. 生涯가 淡泊하기에 어디에 간들 現在보다 더 못하리마는 그래서 낚시대를 던질 만한 물구비야 많다마는 先山을 멀리 두고 걱정되는 것이 省墓할 일이다. 올해 나이가 60이라 脚力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作品을 지은 때가 60老翁으로 爲先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3. 結 詞

結詞는 다음과 같이 3行의 移居嘆으로 끝맺고 있다.

가노라 青山綠水 후에보자 綠水青山,
故園 江山을 내슬허 말나마는,
時節이 하 紛紛하니 불동말동 허여라.

山林處士로서 지내던 三百年 故宅이 있는 十代祖의 遺墟地인 青山綠水를 떠나가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해, 故園江山을 싫어 할까마는 時節이 매우 紛紛하니 다시 찾아와 볼 수 있을지 疑懼하고 있다.

IV. 形 態

이 作品은 다음과 같이 記寫되어 있다.

- ① 三年을병이드러, ③ 村童牧笛聲에
② 二室에누엇더니, ④ 竹窓을 미닷말가.

2行 4句(8音步) 單位의 反復리듬으로 되어 있고, 各音步는 2音節 ~ 4音節로 되어 있으나, 대체로 各句의 前音步는 3音節 後音步는 4音節로 구성되어 있다.

結詞는 丙亂時 斥和를 주장하다가 瀋陽으로 잡혀 가면서 부른 淸陰 金尙憲의 다음과 같은 時調를 聯想케 한다.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
故國 山川을 떠노고자 허랴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瓶 歌)

위의 時調와 比較해 볼 때 結詞는 時調의 形態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金尙憲의 時調의 語法과 表現을 따온 것으로 보아 作者는 斥和派에 同調했던 人物로 보여진다.

V. 瑪川別曲 後序

이 《瑪川別曲》에는 洪萬宗의 『旬五志』에 실려 있는 內容과 비슷한 歌辭에 대한 評이 後序로 실려 있다.

歌曲之在我東方 祇是藩音耳 方言耳 文字之雜而諺譯之傳耳 雖不能與中華古樂府 被之管絃者比 而往往多情境俱載 官商互宣 令人詠嘆淫佚 不自覺其手足舞蹈者 如陳復昌歷代歌 曹南冥動善歌 退陶先生樂貧歌 尙矣不論又如洪忍齊冤憤歌 趙玄谷流民嘆 任休庵牧童歌 白歧峰關西別曲 車五山江邨別曲 宋二相俛仰亭歌 何莫非傷時忿俗 寄心於寂莫幽閑 取適恣情 於送宕者乎 最其中意在憂戀 跡托遊歷 極山水詭怪之觀 兼樂府徵羽之著者 即鄭松江所爲關東別曲將進酒及前後思美人曲而已 之數曲者 眞可謂郢中白雪 伯仲出師之表 而歸來大嶠之外 又得李處士瑪川曲 言言激烈 句句怆怆 隱然有匪風下泉之思 不但其陶寫情性 咀嚼烟雲 獨保上仙情福克紹樂譜節調而已 楚聲商音千古悽惋 優遊自適之中 帶得那窄騷不平之氣 每紙窓寒雨 槩几晴月 命兒曹唱過一翻則 忽苦肉骨俱騰 聲淚交迸者 於戲 茲豈可以藩音方言鄙夷之而 瓦缶俚響顧不足以與衡大樂乎 青坡鉏雲之唱 尙以其有理可賞而不慳一段青布兮 惜乎 安得如楊經理者 採而列之中算雅譜 使天下有志尙者知我東春秋之義亦不減於草野草布之流也 即鄭松江思美人曲不獨鳴 其不平於戲.

洪萬宗은,

我東人所作歌曲 專用方言 間雜文字 率以諺書傳行於世 蓋方言之用 其國俗不得不然也 其歌曲 雖不能與中國樂譜比並 並有可觀而可聽也.

라 하고, 芝峰의 《朝天錄歌詞》에 대한 象村의 評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고는 “信哉 言乎”라고 하였다.

中國之所謂歌詞 即古樂府 暨新聲被之管絃者 俱是也 我國則發之藩音
協以文語 此雖與中國異 而若其情境咸載 官商諸和 使人詠歎淫佚 手舞足
蹈 則其歸一也云.

위의 두 글의 內容이 《瑪川別曲》後序에 그대로 溶解되어 나타난
다. 그리고 後序에 言及하고 있는 歌詞와 『旬五志』에서 評하고 있는
歌詞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瑪川別曲 後序	旬五志
① 歷代歌 陳復昌	① 歷代歌 陳復昌.
② 勸善歌 曹南冥	② 勸善指路歌 曹南冥
③ 樂貧歌 退陶先生	
④ 冤憤歌 洪忍齋	③ 冤憤歌 忍齋 洪暹
⑤ 流民嘆 趙玄谷	② 流民嘆 玄谷 趙緯韓
⑥ 牧童歌 任休庵	③ 牧童歌 休窩 任有後
⑦ 關西別曲 白岐峰	⑤ 關西別曲 岐峯 白光弘
⑧ 江村別曲 車五山	⑥ 江村別曲 五山 車天格
⑨ 俛仰亭歌 宋二相	④ 俛仰亭歌 宋二相純
⑩ 關東別曲 鄭松江	⑥ 關東別曲 松江 鄭澈
⑪ 將進酒 鄭松江	⑨ 將進酒 松江
⑫ 思美人曲 鄭松江	⑦ 思美人曲 松江
⑬ 續美人曲 鄭松江	⑧ 續美人曲 松江
⑭ 瑪川曲 李處士	⑪ 怨婦辭 筠妾巫玉
	⑬ 孟嘗君歌 無名氏

兩書에서 舉論된 作品이 모두 각기 14篇임에는 같으나 『旬五志』
에 거론된 女性의 作品 《怨婦辭》와 無名氏作인 《孟嘗君歌》 대신에
이 後序에서는 退陶先生의 《樂貧歌》와 李處士의 《瑪川曲》을 거론하
고 있다. 이런 面에서 兩書는 無關하지 않고, 또 《瑪川別曲》을 評한
가운데, “青坡鉏耘之唱 尙以其有理 可賞而不慳一段青布兮 惜乎 安得
如楊經理者 採而列之……”는 『於于野談曰 天將楊經理 以禦倭留王京
行軍過青坡橋時 田中男女鉏耘齊聲而歌 經理問通官曰 彼歌亦有腔調
乎 曰皆有腔調 曰可得聞乎 曰 用俚語爲曲 非文字也 令接伴使李恒福
翻譯以進…… 經理覽之 稱善曰 觀此 農人非徒勸於本業 其歌曲亦甚

有理可賞也 遂給青布各一匹”에 근거한 것이다.

洪萬宗이 『句五志』 自序에서

戊午秋 余臥病西湖 畫不得接人 夜則終宵無寐 呼燈起坐 無以爲懷 記得
平昔所聞 詞家雜說 閨巷俚語 使人寫成一冊子 首尾只句有五日耳 仍名之
曰 句五志 蓋欲清景排憂而已 非敢示諸大方也 越明年春 豐山後人玄默子
題

라 한 것을 보면 戊午年이 肅宗 四年이라 이 《瑪川別曲》 後序는 이
뒤의 어느 때 쓰여진 것이겠으나 年代와 筆者를 알 수가 없다.

VI. 結 言

李處士의 《瑪川別曲》은 丙子胡亂을 겪고 난 뒤 國恥를 씻고자 北
伐政策을 수립하여 이의 施行에 腐心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崩御하
신 孝宗朝以後 지어진 作品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그 內容이 時歎과
怨和議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 表現은 慷慨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瑪川別曲》 後序의 評을 옮겨 結論으로 삼고자 한다.

李處士의 《瑪川別曲》을 얻었으니 諄諄이 激烈하고 句句이 忼忼하여
은연중에 異域으로 가는 사람이 故國인 周를 그리워해서 부른 노래인
詩經의 〈匪風〉과 全盛期の 周에 대한 懷古의 情을 읊은 〈下泉〉의 뜻이
있다. 情과 性을 다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음미해 보면 연기와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아 仙로 神仙의 淸福을 누리는 것 같으며, 또 樂譜의 絶
調로 千古에 悽惋한 楚聲 商音이다. 優遊自適하는 가운데 牢騷 不平의
氣運을 얻었는지. 紙窓에 찬비 내리고 梨兒에 밝은 달이 비치면 아이들
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니 문득 肉骨이 다 날아 오르고 소리와 눈물이
뒤섞이니 아아, 이 어찌 藩音 方言이라 하여 鄙夷타 할 것이며 瓦缶의
俚響이라 하여 輿衛의 大樂으로 不足타 할 것인가. 靑坡에서 김 매고 밭
가는 농부의 노래도 오히려 理致가 있다 하여 가히 칭찬하여 한 필의
베로 상주기를 아끼지 않았는데, 아깝도다. 楊經理와 같은 자로 하여금
채록하여 雅譜에 넣어 天下의 志尙者로 하여금 我東의 春秋之義가 草野
韋布의 사람들에게서도 不減함을 알게 했던들 곧 松江의 思美人曲만이
홀로 그 不平을 노래한 것이 아님을 알았을 것을 ……

그러나 이 後序가 언제 누가 지은 것인지 밝혀져 있지 않음이 애
석하다.